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보성군, 생애 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연령별 특성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보성군은 이달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전남도 주관 '2018년 재난·안전관리대책 지원'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지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사전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등 237개소에서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말까지 880회 진행된다.

횡단보도와 도로 안전하게 건너기 실습, 교통법규, 안전운전 등 교통분야, 가스·보일러 안전관리 등 화재분야, 심폐 소생술 감염병 예방법, 건강체조 등 각종 생활안전분야 교육이 추진된다.

특히, 폭염기간에 집중 실시되는 어르신 안전교육은 오는 9월까지 경로당과 마을회관 182개소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구슬끼기, 손수건 천연염색 등 체험활동 과정도 함께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사고발생 시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행복한 보성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보건소, 일본뇌염 정보 방역활동 강화



고흥군은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취약지역 방역활동 강화에 나섰다.

일본뇌염의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모기'가 해남군에서 발견되

면서 지난 6일 질병관리본부가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에 고흥군 보건소는 일본뇌염 감염 차단을 목적으로 16개 읍·면 방역담당자와 방역지원반, 515개 마을 자율 방역단이 참여하여 논, 축사, 웅덩이, 쓰레기장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을 주 2회 실시하였다.

또 일본뇌염 경보로 인하여 수시 방역으로 강화하고 친환경 방제로 전년 근처에 모기 유충 구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주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6개소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였고 전년 주변 10곳에 포충기를 설치하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일본뇌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예방접종을 권유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영광군, 물무산 행복숲 연계한 향교 사망사업 착공

국도비 등 14억원 투입, 편백명상원 접근로·자연친화형 물놀이장 조성

영광군은 물무산 행복숲과 향교 계곡을 잇는 구간에 추진 중인 다목적 사망사업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완료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망사업은 비나 비탈에 흩·모래·자갈 등이 이동하여 나타나는 재해를 예방·복구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 물무산 행복숲에서 향교로 흐르는 계곡은 빗물로 인한 침식이 심하고 같은 구간 계곡부에 위치한 편백숲 또한 계곡 침식으로 나무가 넘어지는 등 피해가 심하여 복구가 시급한 숙원사업 대상지였다.

물무산 행복숲 사망사업은 국도비가 85%인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사망법 2개소, 계류보전 570m를 설치한다. 이에 더해 재해를 위한 단순한 사망법 건설이 그치지 않고 산림수계 전체의 치산 불 관리, 친수공간 및 생태경관조성, 산림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물놀이장 2개소(100㎡, 104㎡), 등산로 570m를 추가로 조성한다.

특히, 자연친화형 물놀이장은 물무산 유아숲 체험원 물놀이장의 약 1.7배 규모로 숲속 2곳에 조성될 예정으로 나무터널 그늘 아래 비탈, 물, 새소리가 어우러진 숲의

향기가 그윽한 숲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광향교에서 편백명상원을 연결하는 등산로의 개설로 접근성이 향상되어 주민들은 물무산을 더 가깝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물무산 행복숲 사망사업은 2019년 상반기 완료 예정으로 물무산을 자주 찾아 그 변화 과정을 확인하는 것도 일상의 즐거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엘로우 출렁다리' 개통하자마자 대박

장성호 수변길과 함께 장성 대표 명소



장성군이 지난달 25일 개통한 출렁다리인 '엘로우 출렁다리'에 개통 초기부터 관광객이 물리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아찔한 전망 시설을 원하는 지역 관광객들의 바람을 제대로 충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주말 6,000여명의 관광객이 '엘로우 출렁다리'를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토요일인 7일엔 2,500여명, 일요일인 8일엔 3,500여명이 '엘로우 출렁다리'를 건넜다. 개통한 지 보름도 안 돼 말 그대로 대박이 난 셈이다.

장성군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인 장성호의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30여억원을 투입해 장성호 삼류인 장성을 용곡리의 호수 협곡을 허공으로 연결하는 154m 길이의 출렁다리를 조성했다. 다리 양쪽에 황룡을 형상화한 21m 길이의 주탑을 세워 장성군의 도약을 표현한 이 출렁다리 이름은 장성군을 상징하는 '엘로우시티'와 '출렁거리는 다리'를 더해 '엘로우 출렁다리'로 명명됐다.

장성군이 '엘로우 출렁다리'를 세운 까닭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장성호의 풍경을 보다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엘로우 출렁다리' 위에 서면 장성호의 수려한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제트스키 등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다.

관광객 유입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장성군은 강원 원주시 소금산 출렁다리를 비롯해 아찔한 출렁다리를 건너며 스릴감을 느끼는

여행객이 예상 외로 많다는 점을 반영해 지역의 관광 명물로 육성하기 위해 '엘로우 출렁다리'를 세웠다. '엘로우 출렁다리'를 건너면 중앙부로 다가갈수록 위아래는 물론이고 옆으로도 흔들거리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맛볼 수 있다. 베이킹이나 롤러코스터와는 또 다른 스릴감을 맛볼 수 있다는 평이 많다.

'장성호 수변길'과 연계된 점은 '엘로우 출렁다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앞서 장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길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km의 트레킹 코스인 '장성호 수변길'을 조성했는데, '엘로우 출렁다리'는 이 수변길의 1.2km 지점과 2.7km 지점을 바로 연결함으로써 완주 시간을 단축해준다.

장성군에 따르면 다리 주변 경관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완공한 다리를 하루라도 빨리 군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식 화장실이 없고 주변 경관을 완벽하게 정비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리를 개통했다.

구례군, 방광마을 전통 숲가꾸기 실시

주민 80여 명 참여 잡초·잡목 제거하고 환경 정비



구례군은 지리산 계곡변에 자리 잡고 있는 방광마을의 전통 숲이 주민들의 손길로 아름다운 풍광을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방광마을회는 지난 5월 구례군과

전통마을 숲을 가꾸기 위해 마을 숲 돌보기 협약을 체결한 후 우드칩 깔기, 산머루 터널 만들기 등 숲 돌보기 활동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등 평소 숲속의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이하여 마을주민 80여 명이 참여해 마을 숲에 식재된 이팝나무, 산딸나무 등 교목류 300주와 산수국, 꽃망초 등 관목류 1,870주가 잘 지랄 수 있도록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환경을 정비하였다.

강태수 마을이장은 "계곡과 연결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나 그동안 제대로 된 풍광과 숨겨진 전설을 소개할 수 없었지만 전통마을 숲 복원으로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며, "주민들과 협력하여 전국 최고의 마을 숲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앞으로도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고 생태적 복원이 시급한 마을 숲을 선정해 고사목 제거, 후계목 심기, 수목환경 개선, 산책로 조성,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숲의 옛 모습을 구현해 숲과 함께 전해오는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아름다운 산림문화재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심형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로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역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